

“인간을 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영화에 담고 싶습니다”

임권택 (동서대 석좌교수, 영화감독)

- 전남대 문학영예박사
- 한국영화연구소 초대 이사장
-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수상
- 제55회 칸영화제 감독상
- 제5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명예황금곰상
- (현)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석좌교수



한국인의 삶, 한국인의 정서로 세계에 우리 영화를 알린 한국영화계의 거장(巨匠). 50년이 넘는 세월을 영화만을 위해 살아온 인본주의자 임권택 감독을 만났다.

●●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회고전 인물로 감독님이 선정되었습니다. 감독님의 작품 101편 중 상영 가능한 70여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만 제 작품 중에 객관적으로 이뤄낸 성과로 보면, 물론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편제’는 우리 소리를 통해 ‘우리’를 되짚어 보게 해줬다는 관객들의 평가가 있어 나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서편제’ 같은 판소리 영화를 만들라고 신이 계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감독 데뷔 작품인 ‘두만강아 잘 있거라’가 흥행을 하고 몇 년 뒤 전라남도에 갔는데 그 지역 판권을 가지신 분이 낮부터 기생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좁은 방에서 판소리꾼이 소리하고 아쟁과 가야금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에 열이 빠졌지요. 가슴이 멍하더니 온 몸에 전율이 오더라구요. 그 때 언젠가는 판소리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그런데 제작 여건이 쉽지 않았어요. 1992년이 되어서야 ‘서편제’를 세상에 내놓았고, 그제야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작품 고르라면 ‘취화선’이겠네요. 이 작품은 칸에서 수상하기도 했으니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특히 칸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라 세계적으로 배급까지 되어서 한국 영화계로 보면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 서편제, 천년학, 춘향전을 보면 우리 전통의 소리를 찾는 길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도의 흙길을 거닐면서 우리의 소리를 전해주는 장면이 유독 관객들의 뇌리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임권택 영화박물관에 ‘세 가지 화두’ 중 첫 번째가 ‘길의 미학’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감독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길을 통해서 미학적 성취를 얻고자하는 것은 없었어요. 다만 제 자신의 삶 자체가 방황하는 기류의 인생이었고 의식 자체도 어느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의지처가 없었기 때문에 정처없이 떠돌아다녔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정처없이 떠도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길은 삶이고 구도이자 그 자체로 생활공간인 셈이지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의지가 굳은 사람들이 자기 완성 또

는 자기 형성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만그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 영화에는 몇몇 영화를 제외하고는 영웅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주변에 흔히 볼 수 있고 시대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인 길을 통해 우리 삶을 그려보고자 했지요.

● ● 세 번째 화두는 일본의 철학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일본의 주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감독님 작품 중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악몽같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일제 치하 때부터 해방 전후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신탁통치 찬반 논란이 있을 때에는 밤에 배라를 뿌리기도 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에는 밤에 아버지를 잡기 위해 형사들이 일본도를 들고 구둑발로 방에 들어온 적도 있었지요. 이념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남북이 전쟁까지 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 작가인 페렌바하(T. R. Fehrenbach)가 쓴 ‘한국전쟁’이란 책을 보면 한국전쟁은 세계 열강이 한반도에서 대리전쟁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약소국의 비애지요. 그 책을 보면서 절실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제 영화 ‘짜코’는 이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인간을 희생의 발판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에서 일본의 철학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계속 유효할 겁니다.

● ●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족 간의 갈등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 아닌 유사가족 간의 조화와 사랑이 두드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살아가면서 가족과 늘 떨어져 살았어요. 뽕뽕이 흩어져 산거죠. 해방 후의 혼란과 전쟁 통에 7남매가 전부 따로 자랐어요. 가정의 따뜻함 같은 것은 체험해 본 적이 없지요.

제 영화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실은 살면서 감동할 일도 없죠. 감동은 감상의 탓 같아요. 세월이 그렇게 감상하게끔 두고 있지 않은데 무슨 감동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멜로 영화를 보면 삶 자체를 미화시켜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저는 거짓스러워서 못 찍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 인간으로 커왔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을 영상화할 뿐이에요. 가족처럼 지내면 그게 가족이지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 ●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지요. 혹시 감독님 영화 중 닮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누구인지요.

어느 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우리 국민을 존경합니다. 일제 강점치의 박해, 보릿고개 그리고 한국전쟁 등 희망없는 국민이라는 생각. 누대를 이어온 가난과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약소국.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일궈낸 우리 국민 모두를 존경합니다.

● ● 17세 연하의 부인과의 인연이 화제였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는 ‘임 감독의 묘령의 여인’이라고 해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부인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요검’이라는 액션영화를 제작하는데 원래 캐스팅 되었던 여배우가 다른 일정 때문에 촬영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집사람은 MBC 텔런트로 합격해서 배우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영화사에서 집사람을 소개해줘서 촬영장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런데 배우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야한 장면이 있으면 못찍겠다고 하고 연기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계속 혼났지요. 촬영 후에 다시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충무로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심전심으로 좋아지게 된 거 같아요.(웃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영화감독이니 쉽게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집사람을 꼬실려고 했던 멘트도 하나 없었지요. 집 한 칸 없고 영화감독으로서도 별 볼일 없었는데. 인연이었던 거 같아요.

● ● 큰 아들은 영화를 전공했고, 작은 아들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반대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둘째 아들이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말을 듣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영화를 끈질기게 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뼈를 깎는 인내심과 끈질김이 필요한데 제 아들에게 그런 면이 있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영화과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이죠. 제가 영화감독인데 한번이라도 우리 아들이 혹시 배우가 된다면 어떤 캐릭터가 어울릴까 생각해 볼 만한데 한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영화배우를 지망했을 때에도 주위의 꼬드김에 넘어가 배우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겨울 밤 지방에서 밤샘 촬영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둘째가 운전을 했어요. 차 안에서 처음으로 배우에 대한 생각을 물었지요. 어떤 배우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카리스마 있는 악역

을 맡고 싶다는 거예요. 속으로 놀랐지요. 연기자로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악역은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둘째는 눈에 기운이 세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잘 본 것 같아 대견했지요. 그래도 감독인 아빠의 덕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지요. 둘째도 자신도 그럴 생각 없고 혼자 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우가 되려는 아들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해본다고 하더니 이름까지 바꿔 버리더군요.

●● 부산 임권택 영화박물관에 전시된 영화 ‘죽보’ 대본에 ‘검열대본’이라고 적혀있는데, 예전에 영화 제작할 때 사전 검열을 받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검열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영화 시나리오가 나오면 시나리오 검열을 받고 영화 제작에 들어갑니다. 영화가 만들어지면 상영되기 전에 다시 검열을 받고요. 이렇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스스로 검열관이 되어서 영화를 만들고 있더라구요. 자기 검열을 하고 있던 거죠. 이렇다 보면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영화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어요. 검열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영화를 즐겨야 할 권리가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조차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검열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이념이나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을 듯 합니다.

●● 한국 영화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관객들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한국 영화는 한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발전에 감독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가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미 한국 영화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최근 몇 년간 개봉한 한국 영화를 보면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고 수준 높은 한국 관객들도 외화보다는 한국영화에 높은 점수를 주고 관객 수도 점차 높아가고 있어요. 외국 영화제에 가보면 우리 영화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어요. 국내 감독의 안부를 외국 영화관계자들이 묻는 세상이니까요. 한국 영화가 빠르게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지요.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의 열정과 끼 그리고 내재되어 있던 엄청난 에너지를 이미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어요. 다만, 이 에너지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분출될 수 있어요. 억압

하고 구속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산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한국 영화가 잘나간다고 해서 방만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잘 나갈 때 일수록 우리 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금씩 다져가면서 진척해 나가야지요. 우리 영화계가 아픈 곳, 모자라는 곳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배급사들의 독과점 현상 등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ADR)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길을 우리 사회 원로로서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양분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진보 쪽 소리도 칭찬하고 보수쪽 소리도 찬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양쪽으로 편을 나눠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진보와 보수는 어찌보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면 너무 지나친 이념적 논쟁으로 민생을 도외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구성원이 많아지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가 어느 편이냐는 이념적 논쟁을 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인본적인 가치인지를 우선적으로 두고 사회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 영화 한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모여져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감독님에게 ‘영화’란 어떤 화두입니까?

삶을 대변하고 우리네 사는 인생사를 투영하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조화롭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우선시 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영화가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